

“지역인재 채용 확대·금융교육·장학사업 등 사회공헌에 앞장”

장세홍 신임 IBK저축은행 대표

부·울·경 대표 중소서민금융기관 출범 6년... 첫 지역 출신 대표 지난해 여·수신 각각 1조 원 돌파



기업신용등급 'A'를 획득했다.

“부·울·경 지역은 금융인으로서 제 인생 전부를 바친 곳입니다. 저축은행에서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범 6년째를 맞은 IBK저축은행의 첫 지역 출신 대표이사로서 취임한 장세홍 신임 대표 이사는 부·울·경 대표 중소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IBK저축은행의 모(母) 은행인 IBK기업은행에 몸담은 30년 대 부분을 동남권에서 근무했던 장 대표는 “동남권 경제와 서민 금융 활성화, 또 지역을 위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겠다”고 했다.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IBK저축은행은 기업은행이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설립된 가교저축은행(예수)을 2013년 7월 인수해 출범했다. 당시 560억 원의 누적 손실을 안고 시작했지만, 2017년에 자본 잠식을 탈피하는 등 저축은행 정상화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 지난해 여·수신 각 1조 원을 돌파해 지역 내 유일한 대형 저축은행으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고, 업계 최고 수준의

장 대표는 이에 “부·울·경에서 확고한 1위를 지키면서 햇살론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등 강하고 탄탄한 저축은행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내일 경영을 위해 올해 총량 목표도 지난해보다 대폭 낮췄다. 중소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해 출시한 모바일 앱 ‘참 좋은 뱅킹 1-뱅크’를 고도화 해 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서민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

인 포용적 금융, 증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적으로는 IBK저축은행만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 대표는 “형식보다는 실질에 충실한, 외형보다는 단단한 내실을 다지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을 쏟는 직원들이 대우받는 업무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IBK저축은행은 IBK금융그룹의 8개 자회사 중 유일하게 부산에 자리잡은 회사로, 지역기업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지역 고객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금융교육과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1961년생으로 거창고와 동아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기업은행에 입행했다. 부산 경남지역 지점장을 두루 거친 뒤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부산울산경남그립장(부행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금융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월 IBK저축은행 부사장으로 경영 전반을 경험한 후 지난 3월 대표이사로서 취임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사민=정종희 기자 jhh@



한국에탁결제원 노사 공동 5억 출연 한국에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17일 여의도 서옥에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사 공동으로 재단법인 사무금융우무재단·사회연대기금에 5억 원을 출연했다.



농민농사 지원 전국 동시 스타트업 행사 부산농협(본부장 박정섭)은 17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민농사 지원 전국 동시 스타트업’ 행사를 기장군 에리마을에서 개최했다.



에덴밸리CC후원회 장학금 전달 에덴밸리CC후원회(회장 조은숙)는 지난 15일 제7차 정기총회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부산지역본부장 여승수)에 저소득층학생 인재양성장학금을 전달했다.



재부강원도민회 수영강 정화활동 재부강원도민회(회장 최은숙)는 지난 14일 창립33주년 기념일에 강원산불피해가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며 온천천과 수영강 정화활동을 펼쳤다.



부산 건보공단 ‘건강백세운동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 지역본부(본부장 오동석)는 최근 성인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시작했다.



부산일보 17기 대학생 인턴 강의 동덕대 권순현·김영서, 동명대 김한솔, 부산대 박경민 씨 등 부산일보 17기 대학생 인턴은 지난 16일 오송회 배리어프리영상포럼 부회장으로부터 영상 기획·구성 강의를 들었다.



부산 중구 여성자랑회 ‘계절음식 나누기’ 부산중구(구청장 윤종서) 여성지원봉사위원회(회장 조재숙)는 지난 12일 관내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120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계절음식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신화남부티갤러리 진로교육지원 협약 신화남부티갤러리(대표 신화남)와 부산시교육청 지정 11개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6일 신화남 청소년직업 체험관에서 진로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두만 김해문화원장 취임

제19대 김해문화원장에 김두만(사진·76) 씨가 17일 취임했다. 김 원장은 김해 출신으로 현재 가락김해시중진흥장을 맡고 있다. 또 김 원장은 김해시 초대 시의회 부의장과 가야문화축제 제전위원장, 김해문화원 부원장 등 지역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문화 현안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지역 내 인망도 두터운다는 평가다. 김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인구 55만, 전국 14대 대도시 김해의 문화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역 문화 발전과 김해문화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정태백 기자 jeong12@



임성춘 부일CEO아카데미 7기 회장 취임

부일CEO아카데미(원장 김진수 부산일보 대표이사 사장) 7기 회장에 임성춘 ㈜에스디테크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부일CEO아카데미 7기 동기회는 지난 16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롯데호텔 41층 아테네룸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사진)을 가졌다. 부일CEO아카데미 동기와 부산일보 임직원, 부일CEO아카데미 총동맹회 집행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김형겸(자산특수토건 회장) 전임 회장의 뒤를 이어 임성춘 회장이 취임했다.
김형겸 전임 회장은 이임사에서 “우리 7기가 지난 한해 끈끈한 정을 통하여 화합할 수 있었던 것은 동기 여러분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신임 회장님과 집행부가 단합하여 가족 같은 동기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동기기회 부회장은 김강진 LG오류



임성춘 신임 회장은 “지난 1년 동기회를 이끌어 주신 전임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7기가 한 걸음 더 도약 할 수 있는 한해가 되자”며 “서로 믿고 끌어주며 멋진 1년을 보내보자”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동기기회 부회장은 김강진 LG오류

대표가 선임되었으며 사무총장은 최용수 (새 부산경제통계연구원 상무이사, 총무이사는 이배길 ㈜이원테크리더디자인 대표이사, 재무이사는 추성희 파라피케이션 하단오거리점 대표, 골프담당 이사는 고운경 ㈜현민화이바 대표이사가 맡았다. 김한수 기자 hangang@

동정

부일여성대학 ‘쌀과 밥 이야기’ 강의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는 17일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열린 제250기 부일여성대학에서 ‘밥의 인문학: 우리가 미처 몰랐던 쌀과 밥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화측

△이창동 김옥희 씨 장남 지근 씨, 최재경 정정숙 씨 장녀 은정 씨 20일 오후 1시 30분 부산 동구 조방로 14 동일타워 디엘웨딩홀 3층 아모르홀. 051-638-6100, 010-3858-6725.

동창회

△재부 밀양고 동문회(회장 박중석) 동문가족 등반대회=21일 오전 9시 30분 부산 어린이대공원 학생문화회관 광장 집결. 백양산 애진봉. 010-9322-0051.
△개교 111주년 창녕 영산초등학교 총동창회(회장 김덕웅)=21일 오전 10시 모교 영축관. 010-3568-5602.

개업

△휴대폰다이소하남점(대표 조일식)=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367번길 16(선경아트빌 1층), 010-8684-0963.
△평양메밀냉면전문점(대표 한옥도)=부산 금정구 금정로 185번길 15, 051-514-3599.

신협중앙회, 강원 산불 피해 복구 11억 전달

신협중앙회는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주민을 위해 전국 700여 개 조합과 임직원, 신협사회공헌재단 등으로부터 단일 금융권 최대 금액인 약 11억 원을 모아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전달(사진)했다.
신협은 전국 700개 조합과 중앙회 임직원으로부터 모은 10억 4892만 6450원을 이날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이 기부한 5000만 원은 현지 이재민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협은 산불 피해 주민과 기업이 대해 신규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하고, 대출 원리금은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신협공제(보험)도 피해지역 조합원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을 약 6개월간 유예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성금 전달을 통해 신협인의 온정으로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하고, 피해 복구도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강희경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

최정우(사진 왼쪽) 포스코 회장이 16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회에 선출됐다.
17일 포스코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철강총보, 환경보호, 철강기술과 제품 개발, 수요확대 등 세계철강협회의 주요사업 방향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현재 13명의 집행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협회 내에 5명으로 구성된 공전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선출되며 임기는 3년이다. 집행위원회에 선출되면 회장단 선임이 가능하며 부회장직 1년 수행 이후 세계철강협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



게 된다.
포스코 역대 회장 중에는 1996년 김만제 전 회장, 2007년 이구택 전 회장, 2013년 정준양 전 회장이 세계철강협회 회장에 선출됐으며 권오준 전 회장은 2017년 부회장에 선출된 바 있다.
황상욱 기자 eyes@

동서대 링크플러스 ‘매우 우수’

동서대학교(사진)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링크플러스’ 육성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 2017-2018년도에 수행된 1단계 사업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동남권 최대 지원금액인 132억 원을 향후 3년간 지원받게 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LINC사업 1.2 단계를 수행한 동서대는 LINC+ 사업을 연속 추진함에 따라 ‘특성화 분야-문화·예술 콘텐츠-세계적 수준의 산학협력 모델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콘텐츠 1st CLASS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단’을 운영했다.
동서대는 동남권 유일, 전국 최고수준 문화콘텐츠 특화 산학협력을 추진해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 및 사업화를 이루었다. 또한, 문화콘텐츠 Start-Up을 통해 교원·학생창업으로 연결시켰으며 문화콘텐츠 합작회사(SPC)를 설립하였다. 동서대 뮤지컬 R&BD ICC(기업협업센터)는 샌텀시티를 중심으로 뮤지컬 인력양성을 추진해 지역의 문화와 산업발전에도 적극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대수 LINC+사업단장은 “동서대만의 차별화된 산학협력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정착시켜 실질적 산학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변현철 기자 byunhc@

